



M48 개조에서 K2 수출로 이룬 수주잔고 30조 시대

1

28 현대로템

HYUNDAI
Rotem

경남 창원市の 한 공장에서 미군 전차를 개조하며 출발한 현대로템이 반세기 만에 수주잔고 30조원 시대를 열었다. 1977년 설립 이후 철도차량과 방위산업, 플랜트로 사업을 확장한 데 이어 최근에는 로봇·수소·항공우주로 영역을 넓히고 있다. 올해 창립 49주년을 맞은 현대로템은 K2 전차 수출과 철도 해외 수주에 힘입어 2분기 말 수주잔고 30조4046억원을 기록했다.

◆ M48 전차 개조에서 K2 수출까지

경남 창원국가산업단지에 있는 현대로템 창원공장은 옛 현대차량(주)이 1977년 문을 연 곳이다. 현대차량은 국방부가 추진한 미국 M48 전차 개조사업에 참여하며 방산 사업에 첫발을 내디뎠다. 6·25전쟁 당시 북한 전차에 고전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노후 전차의 성능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었다.

사업 영역은 철도와 플랜트로 빠르게 확대됐다. 1979년 국내 최초의 디젤기관차를 생산·납품했고 같은 해 플랜트 사업에도 진출했다. 1985년에는 한국형 K1 전차를 출고하며 독자적인 전차 생산 기반을 마련했다.

이후 철도차량 산업 재편 과정에서 1999년 현대정공과 대우중공업, 한진중공업의 철도차량 부문이 통합돼 한국철도차량주식회사가 출범했으며, 2001년 현대자동차그룹에 편입됐다. 프랑스에서 이전받은 기술을 토대로 국내 최초의 고속열차 KTX-I를 제작했으며 2004년 상업운행을 시작해 국내 고속철도 시대를 여는 데 기여했다. 2007년에는 사명을 현대로템으로 변경했다.

2020년대 들어서는 폴란드 K2 전차 수출을 계기로 방산 부문이 실적 성장을 이끌기 시작했다. 철도 부문에서도 해외 전동차 공급을 넘어 장기 유지보수와 현지 생산까지 사업 범위를 넓히면서 수주 기반이 빠르게 확대됐다.

◆ 2분기 매출 13% 증가…수주잔고는 사상 최대

현대로템은 올해 2분기 연결 기준 매출 1조6060억원, 영업이익 2324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보다 매출은 13.3%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9.7% 감소했다.

외형 성장은 방산·항공우주·로봇·수소 사업을 담당하는 AD&RH 부문이 이끌었

현대차량, 미 M48 개조로 방산 첫발 이후 철도·플랜트로 사업영역 확대

2분기 연결기준 매출 1.6조 기록 AD&RH 부문 외형성장 이끌어 수주잔고 30.4조, 창사來 최대치

K2, 나토 품질보증시스템 인증 획득 로봇·수소 통합 ‘RH사업부’ 신설 AD&RH사업본부 체제 확대도 RS사업본부, 개편 통해 AI 적용 초점

방산실적, 폴란드 K2 2차 실행계약 신규 수출국 확보 여부에 달려 철도, 모로코 전동차 사업 ‘주목’

다. AD&RH 부문 매출은 9189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0.7% 증가했으나 영업이익은 2248억원으로 9.3% 감소했다. 수익성이 높은 폴란드 K2 전차의 매출 비중이 낮아지고 국내 방산 물량이 늘어난 영향이다. 직전 분기와 비교하면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12.1%, 2.2% 증가했다.

RS 부문은 매출 5848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0.9%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37억원으로 35.1% 감소했다. 철도 부문의 외형 확대에도 낮은 수익성은 이어졌다.

수주잔고는 2분기 말 30조4046억원으로 창사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RS 부문이 19조8670억원으로 전체 수주잔고의 약 65%를 차지했고 AD&RH 부문은 9조8197억원으로 집계됐다.

재무구조도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했다. 2분기 말 차입금은 1355억원인 반면 현금성 자산은 2조5273억원으로 집계돼 신규 사업과 생산설비 투자에 대응할 수 있는 재무 여력을 갖췄다.

◆ K2 전차 국내 첫 나토 품질인증…유럽 수출 기반 강화

현대로템은 K2 전차 수출 지역을 넓히기 위한 품질보증 체계도 갖췄다. 지난 13일 경기도 의왕사에서 국방기술품질원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품질보증시스템 인증 수여식을 열고 ‘AQAP-2110’ 인증을 받았다. 국내 기업이 이 인



1 현대로템의 다목적무인차량 HR-세르파와 다족보행로봇의 모습. 2 (오른쪽부터)신상범 기품원장, 이용배 현대로템 사장이 지난 13일 현대로템 의왕 본사에서 나토 품질보증시스템 인증 수여식을 마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3 (왼쪽부터)이용배 현대로템 대표이사 사장과 모하메드 라비 클리 모로코 철도청장이 지난 6월 18일(현지 시간) 모로코 라바트에서 전동차 유지보수 사업에 대한 계약식을 진행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4 현대로템이 제작한 KTX-이음. /현대로템

증을 획득한 것은 처음이다.

AQAP-2110은 나토 회원국이 방산물자를 조달할 때 적용하는 품질보증 표준이다. 설계와 개발, 제조 단계에서 갖춰야 할 품질 요구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나토 권역 방산물자 입찰에 참여하기 위한 주요 자격요건으로 활용된다.

인증 대상에는 K2 전차뿐 아니라 구난 전차와 교량전차, 장애물개척전차 등 계열전차도 포함됐다. 현대로템은 2024년부터 5개 본부가 참여하는 사내 테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외부 전문가의 교육과 컨설팅을 병행하며 인증을 준비해 왔다. 이번 인증으로 폴란드에 이어 다른 나토 회원국으로 K2 전차와 계열전차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현대로템 관계자는 “이번 인증을 기반으로 협력사와 함께 글로벌 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국내 방산 생태계의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 로봇·수소 조직 통합…피지컬 AI 대응 체계 구축

현대로템은 기존 사업과 미래 기술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이달 1일 조직 개편도

단행했다. 방산과 철도, 예코플랜트 등에 분산돼 있던 로봇·수소 조직을 통합해 ‘RH사업부’를 신설하고 로봇AX사업실과 수소에너지사업실을 산하에 배치했다.

방산 부문인 디펜스솔루션사업본부는 ‘AD&RH사업본부’로 명칭을 바꾸고 기존 1사업부·4실 체제에서 2사업부·6실 체제로 확대했다. 해외 방산 사업을 담당하던 조직은 항공우주 기능을 더한 ‘AD글로벌사업부’로 개편했다.

철도 부문인 레일솔루션사업본부는 ‘RS사업본부’로 명칭을 변경했다. 국내 공공발주와 민간투자사업을 총괄하던 국내사업단은 ‘RS고객경험사업부’로 격상하고 운영·유지보수 조직도 별도 사업실로 확대했다.

이번 개편은 전차와 철도차량, 물류설비에 인공지능과 자율주행 기술을 적용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현대로템은 차세대 전차와 장갑차, 다목적 무인차량 ‘HR-세르파’에 AI 기반 자율주행과 군집 제어 기술을 적용하고 있다. 예코플랜트 부문에서는 항만 무인 이송 차량을 비롯한 스마트 물류 기술의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용배 현대로템 대표이사 사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수소, 무인화·AI, 항공·우주 등 미래 산업의 경쟁 구도가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며 “자율주행과 피지컬 AI 핵심 기술을 사업 모델 전반에 확대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 폴란드 2차 물량 생산 앞뒤…두 번째 K2 도입국 확보가 관건

향후 방산 실적은 폴란드 K2 전차 2차 실행계약(EC2)의 매출 인식 시기와 신규 수출국 확보 여부에 좌우될 전망이다. EC2 물량은 K2GF 116대와 폴란드형 K2 전차인 K2PL 64대로 구성됐다. K2GF는 2026~2027년, K2PL은 2028~2030년 인도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생산 진행률 등을 고려해 K2PL 관련 매출이 2027년부터 2028년까지 나눠 반영될 것으로 추정했다.

최정환 대신증권 연구원은 “기대했던 수주 사업들이 취소된 것이 아니라 일정 이 지연된 것”이라며 “폴란드 EC2 물량 일부가 2028년으로 넘어가더라도 중장기 성장 방향은 유지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폴란드에 이어 후속 수출국 확보 여부도 향후 방산 실적을 좌우할 변수로 꼽힌다. 페루에서는 지난해 12월 K2 전차 54대와 K808차량형장갑차 141대 공급을 위한 총괄합의서가 체결됐다. 오는 28일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후속 이행계약 협의가 진전을 보일지 주목된다.

이라크 사업은 내각 구성 지연 등 현지 정치 일정의 영향으로 협상이 당초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다. 루마니아도 차세대 전차 216대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입찰과 사업자 선정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

철도 부문에서는 모로코 전동차 사업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더해질 전망이다. 약 2조2027억원 규모의 사업은 설계·개발을 거쳐 2027년부터 생산과 매출 인식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주잔고가 본격적으로 매출로 전환되면 방산에 집중된 실적 구조를 보완할 것으로 보인다.

최광식 다올투자증권 연구원은 “현재 수주잔고를 감안하면 단기적인 수익성 차이는 중요하지 않다”며 “폴란드 후속 계약으로 2030년대 중반까지 외형을 유지할 수 있는 만큼 페루·이라크·루마니아 등 추가 K2 도입국 확보 여부가 향후 매출과 이익의 성장 폭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광희 기자

wkh@metroseoul.co.kr



metro